

설 연휴 전 '실내마스크 해제' 가능성

2단계로 착용 의무 조정 가다

교통·복지시설 등 1단계서 제외 23일 중대본 회의서 확정·발표 겨울철 대유행·중국발 변이 부담

정부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해 2 단계에 걸쳐 착용 의무를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단계 해제 시점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설 연휴 전'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국내외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늦춰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일부 방역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대유행을 뒤늦게 겪고 있는 중국에서 내달 춘제 연휴를 기점으로 신종 변이 출현 가능성도 우려된다며 실내마스크 해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내놓고 있다.

18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해제판단 지표 기준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를 함께 발표하는 방식으로 해제 시점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방역·보건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먼저 일부 시설을 제외(네거티브 방식)하고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할 뒤, 다시 모든 시설에서 전면 해제하는 방식으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1단계 해제에서 제외하는 시설을 대중교통, 복지시설, 의료기관으로 하고 학교나 어린이집 등 교육·보육 기관이나 공공기관은 1단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이다. 다만 고령자도 많이 이용하는 마트의 경우 해제에서 제외할지 포함할지는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일단 1단계 해제 시점은 최근의 코로나19 확산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해 2단계에 걸쳐 착용 의무를 조정하는 쪽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서울의 한 쇼핑몰 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 /연합뉴스

세가 둔화할 경우 이르면 설 연휴가 시작되는 다음 달 21일 이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문가 논의 등이 남아있지만, 되도록 설 연휴 전에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감염병 자문위)에 참여하는 한 전문가는 "겨울 유행이 정점을 치고 내려가는 1월 중순을 마스크 조정 시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다른 보건 당국 관계자는 "설 연휴 전 조정 주장이 우세했지만, 최근 재유행세가 커지면서 조정 시기를 설 연휴 이후로 하지는 분위기도 있다"며 "감염병 자문위의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방역 당국은 여러 지표를 토대로 유행 예상치를 예측하는 모델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실내마스크 해제 조치가 가능한 시점을 도출해 19일 열리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에

제시할 계획이다. 조정안은 자문위 회의 후 다시 정부 내 논의를 거쳐 23일 중대본 회의에서 확정·발표된다.

다만 실내 마스크 해제와 관련해 인근 중국 등 주변 국가의 상황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안팎에서 3년만에 민족 대이동이 재개되는 내달 춘제 연휴(1월 21~27일) 동안 대규모 감염에 따른 신종변이 출현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8862명으로 일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지난 9월 4일(7만2천112명) 이후 15주 만에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다. 광주와 전남도 이날 각각 2076명, 1891명이 신규 발생했으며, 광주에서는 2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가 761명으로 늘었다. 전남에서도 3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 801명을 기록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연합뉴스

김양식 40년 분쟁...마로해역 어업권 진도군으로

대법원 최종 승소...해남 어민들, 생존권 걸린 일 대응책 마련 입장

전국 최대규모의 김양식어장인 '마로해역'의 어업권을 둘러싼 진도군과 해남군 어민들의 40년간 분쟁이 진도군의 승소로 종결됐다.

진도군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5일 해남군이 인 174명이 제기한 '마로해역 어업권 분쟁 관련 행사계약 절차이행 및 여장인도소속'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진도군 어민들의 어업권을 인정하 1·2심 판정이 정당하다고 진도군 어민들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진도군은 해남군이 제기한 헌법재판소의 마로해역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이 각하된데 이어 어업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서 진도군과 해남군 어민들은 1·2심 판결과 무관하게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기로 합의해 40년간 갈등을 빚어온 마로해역 어업권은 진도군 어민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전남도와 해남군, 진도군이 대법원 판결에 따르기 합의한 상황이라서 분쟁은 마침표를 찍게 됐지만, 갈등의 소지는 아직 남아있다.

진도 측 어민들은 내년 7월 말까지 해남 어민들이 김 양식 시설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억원씩 이행강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영 진도군수협 조합장은 "내년 4월 말 김 양식이 끝나면 양식시설 철거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상경계 확정 권한쟁의 심판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모두 패소한 해남 어민들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주 해남군수협 조합장은 "법과 현실은 차이가 좀 있다"며 "현실적으로 174명이나 되는 어민들이 그대로 포기하고 주저앉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정부 "日 한반도 반격능력 행사, 우리 동의 필요"

"전수방위 개념 불변 입장 주목"

정부는 16일 일본이 이른바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데 대해 "한반도 대상 반격능력 행사와 같이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일본이 이번 (안보전략) 문서에 자국 헌법 및 국제법의 범위 내에서 전수방위의 원칙을 견지한다는 방침을 전제로 최초로 반격 능력 보유를 명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관련 논의가 평화협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여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 문서에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의 개념

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표명된 것으로 안다며 "일본 헌법 내 전수방위 개념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엄격한 요건 내에서 행사 가능하다는 내용을 주목한다"고 언급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열린 임시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반격 능력은 엄격한 요건에서 행사할 수 있으며 전수방위의 개념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일본의 입장을 한국 정부가 '주목한다'면서 거듭 강조한 것은 앞으로도 일본의 방위정책이 평화헌법 취지를 흔들지 않아야 한다는 우회적 추구가 풀이된다.

특히 반격 능력에 근거해 유사시 일본이 자신들의 전력을 한반도에 투사하려 한다면 반드시 한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연합뉴스

"소매치기 주의"...파리 지하철역에서 한국어 방송

프랑스 파리 지하철역 1호선 열차와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 등 주요 명소 인근 지하철역에서 한국어 방송이 나오기 시작했다.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이 파리지하철공사(RATP)와 여름과 겨울 휴가철 등에 맞춰 한국어 안내 방송을 추가하기로 합의하면서다.

소매치기에 주의하라는 안내 방송은 파리 주요 관광 명소를 이어주는 핵심 노선인 1호선을 다니는 모든 열차 안에서 나온다. 샹젤리제 거리, 루브르 박물관, 사투레, 사크레피르, 트로카데로, 에펠탑 등 6개 명소 근처 지하철역에서도 방송한다. 유대중 주프랑스 한국대사는 이날 16일(현지시간) RATP 본사를 방문해 한국어 안전 방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참관했다.

유대사는 "세계 제1의 관광도시 파리 주요 지하철역에서 한국어 안내 방송을 하는 것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 상승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방송 기간은 성탄절을 앞두고 시작해 새해 첫 주까지 이어지는 겨울 휴가철과 봄 부활절 방학, 6~9월 여름 휴가철이다. 한국어 여성과 남성이 녹음한 방송은 열차와 역내에서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 등 외국어 방송에 이어 마지막으로 나온다. 이번 방송은 프랑스 한인회 협조로 선발한 프랑스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1명과 40대 여성 1명이 각각 녹음했다. RATP는 2년간 외국인 관광객 방문 자체 통계를 기준으로 중국어, 일본어 방송을 해왔으나 한국어로 방송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주말 골프장 4일 전 취소하면 위약금 무료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3일 전엔 이용료 10%, 음식물 강매 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객이 주말 골프장 예약을 이용 2~3일 전에 취소하면 특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10%를, 당일 취소하면 30%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하는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마련했다.

개정 표준약관은 골프장 예약금과 위약금의 기준이 되는 요금에서 카트 이용요금 등 부대비용은 제외하도록 했다. 또 클럽하우스 식당 등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예약을 받거나 고객이 그늘집(골프장의 홀 중간에 마련된 식음료를 파는 장소) 이용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물품·음식물 등의 구매 강제 금지'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18일 "위약금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음식물·물품을 강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표준약관에 따르면 예약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이용 나흘 전까지는 예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예약금 환불), 2~3일 전 취소할 경우 특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10%를, 하루 전에는 20%를, 당일에는 3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특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에 카트 이용요금, 샤워 시설 이용료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기본 골프코스 이용료에 이용 예정 인원수를 곱한 금액이다.

이용일이 평일이더라도 사흘 전까지 위약금이 없고, 이를 전에는 이용요금의 10%, 하루 전에는 20%, 당일에는 30%를 위약금으로 낸다.

기존 표준약관에는 '입장료'의 명확한 정의가 없어 분쟁 소지가 있었고, 위약금 수준이 현실에서 통용되는 것보다 적어 개별 골프장이 표준약관 대신 자체적으로 마련한 위약금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합뉴스

싼, 임야, 삽니다
지분환영. 010-9582-7400

급매물건 삼니다
경매직전 물건
(주)오천. 010-3605-5000

"급매" 법인까지 함께 인수.

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동 391-3 (전라남도 나주시 혁신산단1길 12-8)

대지 공장용지 12114.6 (3,665 평)
건물 1) 일반철골구조 판별지붕 단층공장 1,326 (400 평)
2) 일반철골구조 판별지붕 2층 사무실 234.6/234.6 (70/70평)
소유자 (주) 크로스지 - 2011년 설립, 제조업

재무액 현황
금융권 채무 33억8천만원 기타채무(1곳) 4억5천만원 시보조금 7억 (공정등록 5년후 소멸)
* 인수총액 39억8천만원
실인수금액 6억 (기타채무 4억5천 상환포함)

010-3812-1394, 070-7747-1399

토지 급매

광주광역시 남구 임암동 692(호천 1지구) 대지 683.4m² (207평)

- 근린생활시설용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2면 도로접(중로1류, 소로2류)
- 5층 건물 신축 가능(대형식당, 스크린 골프장, 커피숍 등 다양한 상가와 1주택 건축 가능)

매매가 : 18억 4천만원

010 - 3605 - 8564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 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사망으로 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익 및 주권 보호 공고)

주식회사 신성일레콤(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유경전력(이하 "을"이라 한다)은 2022년 12월 12일 각사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갑"의 전기공사업 영업부문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을"과 분할합병하고, "갑"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상법 제530조의9제4항의 절차를 밟아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22년 12월 19일
"갑" 주식회사 신성일레콤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중부로 779 대표이사 송재은
"을" 주식회사 유경전력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중부로 779 대표이사 나춘희

산행안내

12월 31일(토)
▲ K산악회 12월 31일(토) 강릉점포대의 '정동진해돋이' "산대관림산자연농산행(산행코스) "해파랑길 36, 37구간(안동·부여) 구간 (영덕·주원·영양·영주·영천·영월) 순회(10:00~14:00) 참가 신청(12월 19일 18:00~19:00) (문의: 010-4111-1111) 아이젠, 텐트, 스틱, 야영포, 저녁음식, 영주채육간(11:00) 동아병원(11:05) 롯데백화점(11:10) 광주역(11:15) 문예후문(11:25) 대원주차장(11:30) 다음카페 & 외장(010794692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0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세남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